

새만금, 식품산업 글로벌 허브 가능성 모색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 -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와 미래 식품산업' 개최
자국 농업 모델·새만금 가능성 공유 협력 방향 제시·미래 식품허브 청사진 공유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과 공동으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와 미래 식품산업'이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시대 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식품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

간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국내외 식품·농업·산업 전문가, 원광대학교·군장대학교 총장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1세션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

금'에서는 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 탕 성야오 소장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과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네덜란드 전문가들은 자국의 농업 모델과 새만금의 가능성을 공유하며 국제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2세션 '새만금 식품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식품허브 전략과 로열캐닌, 풀무원 등 글로벌 식품기업의 사례,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발리의 네트워킹 운영 방안 등이 소개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해 하반기 기본계획 재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은 현재 11조 20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함께 대규모 산업기반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며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를 통해 전북 농생명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식품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오니 알링크 주한네덜란드 대리대사는 "간척 선진국 네덜란드는 물 관리와 도시개발, 농업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양국이 지식과 기술을 더욱 활발히 교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16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19일부터 23일까지의 전북자치도 주요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고령 친화 복합단지 조성”

도, 이번주 주요 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지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 친화 산업 복합 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과 산업, 인재를 한곳에 집적시켜 고령 친화 산업의 전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16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19일부터 23일까지의 전북자치도 주요 일정을 소개했다.

먼저, 고령 친화 산업 복합 단지 조성계획 등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전북만의 특례사업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복합 단지는 약 40만 평 규모로, 복합 용지·산업 용지·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향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지 조성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 유치 전략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이번 주 중 다양한 행사 일정도 소화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완주군에 위치한 전북의 강소기업 (주)비나텍에서 블루에너지사

와의 수출계약 체결식이 열린다. 비나텍은 '슈퍼 커패시터'라는 비상 전원장치를 개발해, 향후 3년간 총 180억 원 규모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는다.

계약 상대방인 블루 에너지는 세계 1위 연료전지 전문 기업으로, 이번 계약을 계기로 전북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같은 날에는 완주군 일원에서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전북 대표도서관 착공식이 전주시 장동 1090번지 소재 대표도서관 건립 부지에서 개최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주 중 다른 주요 일정들도 이어간다.

19일에는 전북 혁신 벤처펀드와 관련한 하반기 업무 집행 조차원 모집 공고가 발표된다.

22일에는 그동안 논의돼 온 새만금 사업의 국가과제 반영을 위한 브리핑이 열린다. 이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대도시 가시화를 위한 공약발굴 새정부 제언계획의 일환이다.

22일과 23일에는 부안에서 강원도와 전북자치도 간 특별자치도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한다.

일 광역지자체의 특별자치도 성공실현 및 차질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특례 발굴사례를 집중 연구 논의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배달업소 대상
농·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교육도 병행해 유통질서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위반 시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표시 행위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본부-119레오

폐방화복 재활용 협약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5일 119레오(주)(대표이사 이승우)와 폐방화복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태가 양호한 폐방화복을 재활용(업사이클)하기 위한 것으로, 방화복의 기능적 특성과 상징성을 살려 일상 속 소비의 가치를 확산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활용은 재판매가 가능한 소재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방화복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장비로, 내열성이 강한 아라미드 및 PBI 원단으로 제작되어 고온에서도 뛰어난 열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방연,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재 도내 15개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평균 250여 벌의 방화복이 불용 처분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119레오(주)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폐방화복을 가방, 지갑, 키링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한편, 119레오(주)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암투병 중인 소방관 및 PTSD를 겪는 소방관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바이오진흥원, 글로벌 수출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와 북미·호주 공략 수출상담회·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전북 농수산물 글로벌 수출상담회 및 전략 세미나'가 지난 14~15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수출상담회에 초청된 삼진글로벌넷 바이어단은 국내를 대표하는 수출기업으로 북미·호주 시장을 관망하고 있으며, 전북 방문은 처음으로 지역 식품기업과의 실질적 수출협력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행사 첫날에는 미국과 캐나다 유통

망을 담당하는 바이어와 도내 기업 간 1:1 수출상담회가 진행됐다. 참가기업들은 제품을 직접 선보이고, 삼진글로벌넷 바이어들로부터 시장 경쟁력, 품질, 현지 반응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았다.

특히 일부 제품은 현장 매칭과 구체적인 공급 논의로 이어지며 실질적 성과로 직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둘째 날 진행된 '호주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는 실제 유통 사례를

토대로 한 전략 정보가 공유되었다.

삼진글로벌넷 MD들은 현지 유통 환경, 검역 규정, 소비 트렌드 등에 대해 실무 중심의 분석정보를 제공했으며,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의와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수출 추진 과정에서 겪는 고충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 식품기업들은 글로벌 유통기업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확대하고, 실전 중심의 수출역량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상근 기자

도, 평생교육이용권 2600명 지원… 저소득층 우선 선발

1인당 최대 35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학습 참여가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전북에서는 저소득층(19세 이상), 디지털 분야(30세 이상), 노인

분야(65세 이상) 등 총 3,171명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1차 모집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되며, 노인과 디지털 분야는 2차 모집을 통해 6월 중 모집될 예정이다.

신청은 전북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11lcl.kr/jeonbuk)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NH농협카드(채용)로 교육비를 포인트 형태

로 지급받아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드론으로 국토를 재다’…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국토부 주최·LX공사 주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한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국토정보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지적측량수행자, 학계 전문가,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 주요 종목은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사전 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쳐 실질적인 지적측량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받았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지적 구현을 위한 지적업무 수행 능력을 겨루는 동시에 최신 드론 기술을 활용한 드론 기반 지적측량 수행 능력도 발전했다.

지적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실무자들의 지적측량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공공과 민간, 학계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지적업무 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작"이라며 "드론, AI 등 IT기술 발달의 시대적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변화에 맞춰 지적측량 기술을 더욱 혁신해 정밀한 지적측량, 효율적인 스마트 국토 관리 등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X는 내년에도 경진대회를 더욱 확대 개최해 지적·드론측량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대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 부문 장관상 ▲경기도 화성시 ▲대구광역시 중구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드론측량 부문 장관상 ▲충청북도

진천군 ▲(주)일도엔지니어링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청남도 홍성군 LX 사장상 ▲LX 대구경북본부 ▲LX 부산울산본부 ▲(주)엘티메트릭 ▲LX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주)연계측량기술원

◇세부측량 부문 장관상 ▲전주대 김수민 LX사장상 ▲전주대 정지운 ▲전주비전대 김유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경일대 김형욱 ▲대구과학대 김민규 ▲청주대 박수범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기업 유치 보다 중요한 건 ‘정착’

전북자치도, 졸업 앞둔 식품기업 42개사 맞춤 밀착 상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기업정책 전담기관으로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식품 관련 기관에 입주해 있는 식품기업 중, 향후 2년 내 졸업 예정인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면담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유치 활동을 넘어, 전북에서 성장한 식품기업들이 졸업 후에도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형 기업지원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전북에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축산융합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주요 농식품 지원기관 내에 총 73개 식품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42개사가 2년 내 졸업을 앞두고 있다.

주목할 점은 졸업 기업의 도의 이탈 비율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25년 4월 기준, 최근 5년간 졸업한 114개 식품기업 중 약 83%인 95개사가 현재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68개사는 도내, 27개사는 도외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졸업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실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입주 가능한 공간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13곳,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정주 인프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별 성장단계에 맞는 경영컨설팅, 사업 고도화 지원, 관계기관 연계 등 후속 지원도 병행함으로써 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전북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서 총괄 추진하며, 각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면담·정보제공·입주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식품산업 중심지로 도약 중인 전북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화목한 가정과 함께 안전한 일상 만들기

도, 전북자경위·경찰청 등과 가정의 달 맞아 연합 캠페인 전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전주 중앙시장 일원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민관 연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경찰청,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전북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기관이 참여해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예방활동 확산에 함께 나섰다.

이들은 캠페인 현장에서 폭력예방 홍보 전단지 배부하고, '누구나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을 설치했다.

아울러, 전주 중앙시장과 중앙상이 인근 공공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도 점검하며 실질적인 현장 대응 활동도 병행했다. /이만호 기자